

모바일뱅킹, 하루 이용 5조 시대...고령층에는 '남의 일'

한국은행,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모바일뱅킹 일평균 이용금액 5.2조원 돌파 젊은층~중장년층 이용확산...고령층은 미미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고령층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모바일뱅킹의 일평균 이용건수는 7200만건, 이용금액은 5조2000억원을 돌파했다. 모바일 간편송금·결제 건수도 480만건, 금액도 2075억원을 넘어섰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빠른 인터넷 이용 환경에 힘입어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한은이 전국 성인남녀 259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개월 내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중이 전체의 63.5%에 달했다. 모바일뱅킹 이용비율은 57.9%로 1년 전 조사 때보다 11.9%p 증가했고 간편송금·결제와 앱카 등 모바일 지급서비스도 44.9%로 같은 기간 18.8%p 늘었다.

연령대는 낮을수록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모바일뱅킹의 경우 30대가 89.3%가 가장 많았고 20대(79.8%), 40대(76.9%) 순으로 뒤를 이었다. 50대의 비율은 1년 전 33.5%에서 지난해 51.8%로 급등했다. 중장년층까지도 모바일뱅킹 이용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모바일 지급서비스는 20대(80.8%)가 가장 많이 이용했고 30대(78.2%)가 전년 대비 27.8%p 뛰어 가장 큰 폭 확대됐다. 그러나 고령층의 이용은 저조했다. 60대 이상의 모바일뱅킹 이용경험 비율은 13.1%에 그쳤고 모바일지급 서비스는 6.7%에 불과했다.

한은은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이용이 저조했다"며 "모바일화 진전으로 고령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제할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령·소득별로는 20~30대 청년층과 6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가장 이용비율이 높았다. 두 모바일뱅킹을 모두 이용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6%는 일반은행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바일뱅킹을 선호했다. 선호 이유로는 이용 편의성, 높은 혜택 제공 등을 주로 꼽았다.

모바일 지급서비스 중에서는 신용카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를 주회 이상 이용한 응답자 가운데 84.9%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뱅킹을 비롯한 인터넷뱅킹 등 전자방식의 지급수단 이용이 확대되면서 어음·수표 이용 규모는 큰 폭 감소했다. 자기앞수표의 경우 지난해 이용건수는 48만5000건으로 전년 대비 23.8% 급감했고, 금액도 1조6580억원으로 13.9%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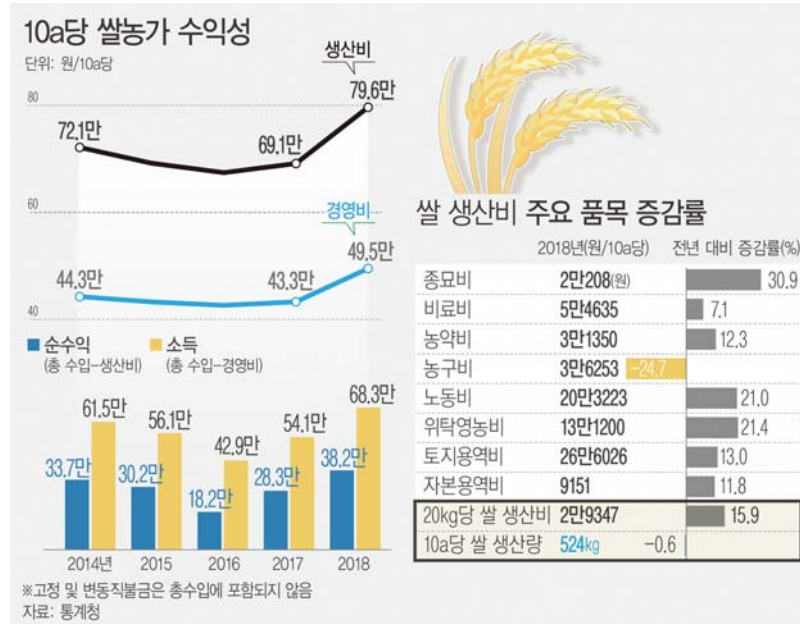
특히 고액현금 대신 사용된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5만원권 발행 이후 빠르게 대체되면서 건수와 금액 기준 전년 대비 모두 27.3%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현금을 인출하는 주요 채널인 ATM 대수도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말 12만4236대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2017년말 12만492대로 274대 급감했다. 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 축소에 나서면서 ATM을 축소한 영향이다.

한은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현금 이용 빈도가 높으며 'ATM 감축이 이들의 현금 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쌀값 올라 논벼 수익성 개선...농가 총수입 21% 늘었다

통계청, 2018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 농가의 총수입이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쌀값이 올라 논벼의 수익성이 개선됐다. 농가의 순수익률과 소득률이 모두 올랐다.

26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a(1000㎡)당 논벼 총수입은 117만8214원이다. 전년보다 20.9%(20만3661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농가가 1년간 수확한 논벼 등 주산물과 볏짚 등 부산물을 모두 더한 값이다.

쌀 총 생산량이 2.0% 감소했거나 산지 쌀값이 상승해 논벼의 수익성이 나아졌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20kg당 산지 쌀값은 전년보다 26.4%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a당 논벼 순수익률은 32.4%로 전년보다 3.3%p포인트(P), 소득률은 58.0%로 2.4%p 상승했다. 10a당 논벼 순수익률, 소득률은 산지 쌀값에 안동돼 2014년부터 3년간 악화됐다가 2017년부터 개선되는 추세다. 2013년 32.5%, 59.9%였던 순수익률, 소득률은 2016년 21.2%, 50.2%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32.4%, 58.0%로 회복됐다.

한편 지난해 10a당 논벼 생산비는 79만6415원으로 전년보다 15.2%(10만5041원) 증가했다. 직접생산비는 16.4%(7만3463원) 늘

었다. 증가액 중 노동비가 3만5313원, 위탁영농비가 2만3161원, 수도광열비 등 기타가 1만2369원이다. 간접생산비는 13.0%(3만579원) 증가했다. 쌀값 상승에 따른 토지용역비 증가분(3만615원) 비중이 컸다.

10a당 논벼 생산비를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87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충북이 86만원, 전남이 82만4000원이며 경기(71만5000원), 경남(73만1000원), 경북(75만9000원)의 생산비가 낮았다.

10a당 논벼 생산비를 경영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이 85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79만6000원)보다 6만2000원 많은 금액이다. '39세 미만'이 78만9000원, '60~69세'가 78만18000원이었다. '40~49세'가 73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20kg당 쌀 생산비는 2만9347원으로 전년보다 15.9%(4025원) 증가했다. 10a당 논벼 생산비가 증가하고 10a당 쌀 생산량은 감소한 탓이다. 통계청은 "날씨 형성 시기에 폭염과 강수가 잦았고 여름 때(특수기)에는 일조시간이 감소하는 등 기상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은 전국에서 논벼를 1980㎡ 이상 재배하는 농가 중 1024곳을 뽑아 이 통계를 작성했다. 각 가구에서 논벼 생산비 조사항목을 집계해 전국 평균생산비를 산출했다. 조사 기간은 2018년 1월일부터 2월31일까지다.

뉴시스

"거실에 화분 3~5개, 초미세먼지 20%정도 준다"

농촌진흥청, 4년 간 실내식물 대상 연구 결과 발표

거실 20㎡ 규모에 잎 면적 1㎡의 화분 3~5개가 있으면 초미세먼지가 20% 가장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농촌진흥청이 4년 동안 여러 종의 실내식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식물이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실험은 챔버에 미세먼지를 공기중으로 날려 3시간 가량 뒤 뒤 가라앉은 큰 입자는 제외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를 식물이 있는 밀폐된 방과 없는 방에 각각 넣어 두고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실험결과, 미세먼지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화 기기를 이용해 식물이 있는 방에서 초미세먼지가 실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초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식물도 선발했다. 이는 잎 면적 1㎡ 크기의 식물이 4시간 동안 줄어든 초미세먼지 양 기준이다.

우수한 식물은 파키라(4시간 동안 줄어든 초미세먼지 양 155.8μg/㎡), 백량금(142.0), 맥시코소철(140.4), 박쥐라(133.6), 울마(111.5)

5종이다.

농진청은 초미세먼지 '나쁨'(55μg/㎡)인 날 기준으로 20㎡의 거실에 잎 면적 1㎡의 화분 3~5개를 두면 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를 20%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현미경으로 잎을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율적인 식물의 잎 뒷면은 주름 형태, 보통인 식물은 매끈한 형태, 효율이 낮은 식물은 표면에 잔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16억대' 옛 전남지사 한옥공관 4월9일 입찰...새주인 만나



고비용·저효율 논란이 일었던 옛 전남도지사 한옥 공관에 대한 입찰이 오는 4월9일 첫 진행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한옥 공간인 '어진누리'에 대해 복수기관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한 결과 16억6400억원의 평가금액이 나왔다.

애초 들렀던 17억~19억원대 시세보다는 낮게 나왔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이를 토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공관을 매물로 내놓았다.

현재 한옥 공관에 대해 매물공고가 나 있으며 오는 4월9일 첫 입찰

이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한옥 관사가 1종 전용 주거지역에 포함돼 상업용도 전환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20억원에 육박하는 고가라서 매수자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각소식에 전남도에 문의가 잇따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첫 입찰에서 새주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한옥 공관은 무인근 상행면 남악신도시 내 전남도청 뒤편에 착공 1년 6개월만인 2006년 10월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444.7㎡(134평) 규모의 복조한옥 팔작지붕 구조로 완공했으며, 안채를 비롯해 사랑채, 문간채, 지하기계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정환 기자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